www.GungPlant.co.kr
시원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진료하는
궁플란트치과의원
TEL. 02-722-2870 조계사 앞 사거리,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 앞

佛敎新聞

성지순례 해외여행 맞춤여행 명산트레킹 항공권
또 다른 당신을 만나는 협력의 여행사
(주)마야투어 조승환 합장
www.mayatour.co.kr 02-722-9001 010-8443-9001

1960년 1월 1일 창간 주2회 발행
불기 2556년 4월 21일 (2012년 / 단기 4345년 음력 윤3월1일)
bulgyo.com
대표전화 (02)730-4488 제2810호 토

"욕심 낸다면 내 것 아니다" 원로의원 성수대종사 원적

19일 통도사서 원로회의장 '엄수'

조계종 원로의원 활산당(活山堂) 성수(性壽)대종사가 지난 15일 오전 6시경 영축총림 통도사 관음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9년, 세수 90세. 1923년 경남 울주에서 태어난 성수대종사(사진)는 1944년 양산 내원사에서 성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48년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후, 제방선원에서 수선 안거했다.

성수대종사는 이(理)와 사(事)를 두루 겸비한 당대 최고의 선지식으로 손꼽힌다. 성철·청담스님 등이 주도한 봉암사 결사에 동참해 한국불교의 사상적 중흥을 이끌었고, 조계사, 해인사, 범어사, 고운사 주지 등 교구본사 주지를 역임하며 종단행정 안정에도 매진했다. 특히 1981년 제18대 총무원장으로서 10·27법난 이후 혼란에 빠진 종단을 수습하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은 성수대종사는 1994년과 2007년 원로의원으로 잇따라 추대돼 최고령 원로의원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2005년에는 전계대화상으로서 수많은 불자들을 부처님 법제자로 이끌었다. 조계종의 선(禪)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서울과 함양, 산청 등 전국 곳곳에 선원을 개원하고 출·재가를 가리지 않고 문호를 개방하며 수행의 행복을 일깨웠다.

비록 전계대화상의 소임은 놓았지만, 팔순을 넘긴 세수에도 전국 각지의 사찰과 불자들이 가르침을 원하면, 어려운 곳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법문을 베푼 대종사의 행적은 부처님 말씀으로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전법도생(傳法度生)의 열정과 의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3면

성수대종사는 원적 당시 임종게를 남겼다. 대종사는 이를 통해 "다른 것 버리고 보물을 찾아라"며 "우주만물이 모두 열반이로다"라고 전했다. 또 "시방세계가 눈을 깜박이는 순간 다 보아도 모자라는데 무엇이 그리 바쁜가"라며 "욕심 낸다면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될 것"이라고 후학들의 정진을 당부했다.

성수대종사의 분향소는 통도사 설선당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19일 오전10시 통도사 대웅전 앞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된다. 〈4월17일 현재〉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지난 17일 동학사 승가대학에서 '종교 간 화해와 상생'을 주제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김희중 가톨릭 대주교,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유교 성균관장,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등 종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인 스님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공주=신재호 기자

교리·세대 너머 '공감대' 발견하다

주요 종교지도자-공주 동학사 학인 '소통의 시간'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이 천년고찰에서 젊은 학인 스님들을 만나 작은 소통을 이뤘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가톨릭 대주교, 김주원 원불교 교정원장, 최근덕 유교 성균관 관장,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은 지난 17일 공주 동학사에서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과 종교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상을 이웃종교인에 알리자는 목적에서 마련된 자리다. 이웃종교인과 스님들은 교리와 세대 차이 너머의 공감대를 발견하며 짧지만 알찬 시간을 보냈다.

1956년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전문강원을 개설한 동학사는 현재 사미니 승가대학과 전문교육기관인 화엄승가대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강사 스님 포함 90여 명의 대중이 정진하는 대찰이다. 종교지도자들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하고 검박한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덕담을 격려를 보탰다. 김희중 대주교는 "수행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을 만나게 돼 반갑고 기쁘다"고 말했고, 최근덕 성균관장은 "우리 사회의 과제인 종교간 평화를 여러분이 주도해 달라"고 말했다. 김주원 교정원장은 "모든 종교의 근본정신은 같다"며 자비의 올곧은 실천을 주문했고, 한양원 회장은 "나이 어린 스님들의 청빈한 품행을 보며 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며 몸을 낮췄다. 특히 이웃종교인들은 대웅전에서 스님들과 똑같이 부처님 앞에 삼배를 올리며 성직자로서 모범을 보였다.

학인 스님들의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빼가 잠겼다. 누군가 물리적 충돌은 아직 없지만 내재된 갈등이 차츰 표면화되고 있는 한국의 종교상황을 정확히 지적하며, 각자가 준비하고 있는 종교화합 방안에 대해 물었다. '남존여비'의 대명사인 유교의 원로에겐 여성의 활발한 사회적 진출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가톨릭의 적극적이고 진보적인 사회참여를 칭찬하는 동시에 불교의 사회참여도엔 몇 점을 주고 싶으냐는 당찬 질문도 나왔다. 물론 대답의 분위기는 진지하되 정다웠다. "속에 쌓인 응어리 때문에 그러시는가 보다, 남녀차별은 과거 세계적인 대세였다"란 최근덕 관장의 응수에 좌중엔 웃음이 터졌다. 아울러 사회참여도 중요하지만, 종교 본연의 숭고한 정신세계 이른바 '침묵의 가치'를 일깨워야 한다는 새로운 화두도 던져졌다.

> 수행의 길 함께 걷는 도반 만나 기쁘다
>
> 스님들의 청빈을 보며 스스로 되돌아보게 됐다
>
> 불교 사회참여 점수? '짧지만 알찬 대화'

'열림'과 '깨임'의 마당을 열어준 주역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이었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은 50개 종교와 500개 종파가 산재하는 다종교사회인 만큼 종교끼리 수시로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전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만남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스님들에겐 "상구보리(수행)와 하화중생(전법)을 함께 힘쓰면서 균형감을 잃지 않는 수행자가 되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공주=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 넓혀요"

장애인의 날 맞아 '인식개선' 캠페인·행사

제32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는 불교계 행사가 잇달아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조계종 장애인전법단(단장 도륜스님)은 지난 14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계 장애인복지시설이 동참한 가운데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에게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리플릿을 배포하고 경내에 부스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포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장애인 불자들의 모임 보리수아래,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등이 참여해 기초수화 배우기, 안마시연, 생산품 판매, 휠체어 체험 등 장애인을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장애인전법단장 도륜스님은 "이번 체험행사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스님)은 16일부터 21일까지 장애인의 날 주간으로 정하고 복지관 일원에서 미니 바자회, 무료대중공양, 아외 나들이 등 장애인들에게 온정을 나누는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대표 해성스님)은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기무사령부의 후원으로 청각, 시각,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19일 강원도 철원지역 군부대를 방문했다. 이들은 철의 삼각 전적지, 제2땅굴, 평화전망대 등을 견학하고 나라를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또 철원 심원사를 참배하며 불자로서 신심도 다졌다.

의왕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관장 성행스님)은 의왕시와 함께 20일 의왕 국민체육센터에서 '제5회 의왕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지역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장애극복상 수상식을 비롯해 휠체어 댄스, 난타 공연 등이 펼쳐졌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스님)은 21일 영주시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체험하는 '장애체험 한마당'을 열고 장애인을 위한 희망메시지가 담긴 희망바람개비와 장애인 보장구를 전시하는 등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社告

라오스에 희망을 밝히는 '나눔결사'에 동참을!

월 1만원의 정기후원에 참여하면 수술비가 없어 시력을 잃어가는 라오스 어린이들의 눈망울에 빛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열악한 흙바닥에 앉아 공부하면서도 해맑게 웃는 어린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나눔, 작은 실천이 시작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불교신문사가 함께 합니다.

· 목 표 액 : 1억원(1인 수술비용 10만원)
· 동참방법 : 월 1만원 이상 자유기금 참여
· 후원계좌 : 농협 301-0058-8672-51 (예금주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지면안내

1994년 조선족동포 마지막 개운사서 합숙-훈련 7면

탄허스님 육성사리으로 미래반야를 재조명해 탄신 100주년 세미나 …… 13면

圓 大韓佛敎曹溪宗 元老議員 活山堂 性壽大宗師 元老會議葬 寂

靈鷲叢林 通度寺 活山堂 性壽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56年 4月 15日(陰 3. 25일) 06:00時
靈鷲叢林 通度寺 觀音庵에서 法臘69年, 歲壽 90歲로 圓寂에 드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焚 香 所 : 靈鷲叢林 通度寺 說禪堂
■ 永訣日時 : 佛紀2556(2012)年 4月 19日(陰 3月 29日) 午前 10時
■ 永訣式場 : 靈鷲叢林 通度寺
■ 茶 毘 場 : 靈鷲叢林 通度寺 茶毘場

■ 문 의 : 통도사 종무소 ☎ (055)382-7182, 384-8380
■ 주 소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영축총림 통도사

大韓佛敎曹溪宗 活山堂 性壽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